

대행 스님

내가 나를 모르고야 어떻게 남을 건질 수가 있겠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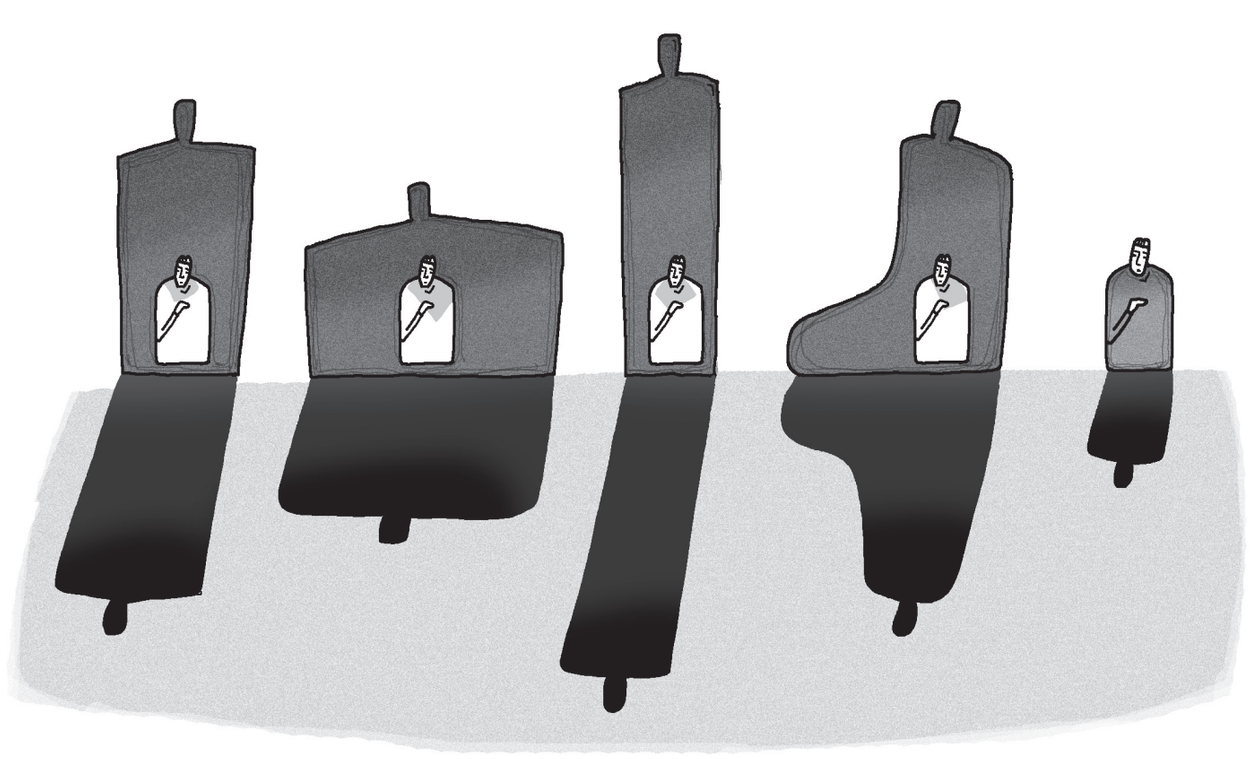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항상 여러분과 마음은 함께 하고 있으면서도 또 여러분은 여러분이고 나는 나고, 찰나찰나 이렇게 헤어졌다 모였다 하는 것이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도량이 좁아서 불편한 것도 여러분의 마음이 넓다면 어디인들 어떠하리까? 이 모든 게 물질적으로는 행하지 못하는 한마음이 모두를 행해서 이 현실 물질세계로 나올 수 있게끔 바로 여러분이 대치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이 공부를 꼭 해야만 하느냐? 한 철 나는 동안에 세세생생에 굴러야 하는 관습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린 지금도 수억겁을 거쳐 오면서 한 컵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건 여러분이 들어서 잘들 아시리라고 믿고요. 우리가 지금 물질세계에서 어떠한 병고가 닥쳤다든가, 어떠한 가난이 닥쳤다든가, 어떠한 소송이 걸려왔다든가 어떠한 문제든지 용도에 따라서 닥쳐올 때, 내가 어떻게 대치를 해야만, 여러분 제각기 어떻게 대치를 해야만 되겠습니까?

지금 살아서 그것을 대치할 수 없고 살아서 나를 볼 줄 모르고 나를 알 수 없는 그런 경지에서는 요다음에 옷을 벗어도, 죽었다 하더라도 관습에 끄달리는 그 영혼만 그대로 남을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또 모습을 달리달리 쓰고 또 이 세상에 출현을 하게 되죠. 무슨 지옥이 따로 있다 이렇게 생각 마시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다른 짐승의 모습을 쓰고 나오거나, 곤충의 모습을 쓰고 나오거나, 독사의 모습을 쓰고 나오거나 이런다면 그게 바로 차원에 따라서 그 지옥을 면치 못한다는 뜻입니다. 오무간지옥이다 하는 것도 바로 땅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그것이 바로 오무간지옥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지, 안 하면 안 된다는 것이 결정적인 문제입니다, 이게.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게 닥쳐오든지 대처를 하려면, 예를 들어서 아들이 바다에 나가서 일을 한다 이럴 때, 참 생명이 위급하다 할 때 남은 모르지만 자기 혼자 너무 위급한 걸 알았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는 얘깁니다. 그때 보이지 않는 무(無)의, 무심(無心)으로써 오고 가는 통신이 있어야 이것을 건질 수 있는 것인데, 어떻게 통신이 되느냐?

주해신에, 예를 들어서 바다의 소임을 맡은 그 보살한테 내가 통신을 하려면 내 마음이 거기에 찰나에 한마음이 돼야 건질 수 있다 이 소립니다. 그런데 내가 마음을 발전시키지 않고 내 마음과 참나와 통신이 되지 않는다면 그 주해신한테도 통신이 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럴 땐 속수무책이다 이거야. 건질 수가 없어. 또 그것은 하나로 방편을 세워서 지금 얘기하는 건데 방편 아닌 방편입니다, 그게. 이름은 그러하지만 진실은 그대로니깐요.

우리가 어떠한 용도에 따라서 다가오는 거를, 안에서 일어나고 바깥에서 다가오고 하는 거를 어떻게 양면을 대치하느냐? 지금 그 바다 하나를 예로 들어서 이렇게 일러 드렸으니까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어떠한 여건이든지 다 그러합니다. 바다의 소임을 맡은 신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저런 산에도 주산신이 있고 또 나무들 관리 소임을 하는, 풀과 나무들 모두를 관리하는 그러한 소임자는 바로 주림신이라고 합니다.

이 모든 신들에 의해서, 내가 어떠한 용도에 따라서, 만약에 신도들에게 어떤 일이 닥친다면 그 신도들이 딴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나 각자 여러분께서 그리로 그리로 통과가 돼야 살릴 수 있다는 얘깁니다, 어떠한 문제가, 여건이 벌어졌어도. 우리가 한 회사에, 큰 회사에 회장이 됐으면 회장의 권리가 있어야 공장장 또는 사장 또 부사장 이러한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다 이 소립니다. 이 모두 우리가 관찰해서, 위에서 관찰해서 그게 잘못됐으면 잘못된 대로 그것을 대치해서 명령을 내려야만, 명령이라고 할 건 없지만 결정을 지어야만이 모든 회사가 잘 돌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듯이 이 부처님과 보살, 이 부처님 한생각에서 보살들을 생산시키는 데는 헤아릴 수 없는 보살을 생산시킬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렇게 또 지금 하셨고. 그러니 우리 한생각에서 생산처가 벌어지고 있죠. 그럼 우리가 전체 삼천대천세계 한가운데 그 법정이 생긴다는 거, 이건 부처님의 한생각이 바로 법입니다. 그래서 그 생각이 바로 생산처라고 한다면, 이 생산처에서 사람이 죽고 살고 하는 그러한 모든 판결을 낼 수 있는 그런 그 서류가, 우리 보이는 데는 책이 있고 글자가 있지만, 백지에 글자가 없는 글자가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무심권도(無心權道)'의 책입니다. 그래서 생산천이라고 하죠. 그런데 생산을 해내기도 하지만 들이기도 하니까 이 들이고 내는 데를 '생사천'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이름해서 말입니다. 이것도 이름을 떠난 생사천이지 이름이 있는 생사천이 아닙니다. 그 생사천에 모두 서류가 있단 얘깁니다.

그러면 사람이 얼른 쉽게 말해서 70살에 갈 사람이 장부에 한 25세쯤 돼서 갔다, 가려고 한다 이럴 때, 만약에 어느 부처님이나 어느 스님께서 이렇게 보실 때에 '아, 이 사람은 한 70살이나 근 살 텐데 어째서 25세가 됐는데 죽어가나?' 하고 검증을 할 때 바로 부처님뿐만 아니라 또 스님네들뿐만 아니라 각자 여러분도 공부한 사람들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볼 점이 있단 얘깁니다. 생각해볼 때 '아, 이거는 어디서 잘못됐구나.' 하고 그 장부를 가지고 오래 봐야만 그게 해결이 난다는 얘깁니다. 그래 생사처의 그 장부를 보려면 통신이 돼야 되죠. 생사처의 모든 소임자를 내 마음이 그쪽으로 가서 둘이 아니게 돼야 그 장부를 볼 수가 있단 얘깁니다. 그래서 살려 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공부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살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죽는 것도 사는 것도 떠나서 내가 한 권리를 갖는다면, 한 생으로 인해서 자유스럽게 세세생생을 벗어나는 겁니다. 우리들이 살아나가는 인생길이 가끔 생각한다면 너무도 참혹할 때가 많거니와 부자다 가난하다 하는 것도 한순간에 돌아갑니다. 부자로만 그냥 있는 것도 아니고 가난으로만 그냥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또 사람도 잘난 사람으로만 있는 것도 아니고 못난 사람은 못난 대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잘나고 못나고 바꿔 가면서 변해서 화하고, 화해서 나투면서 이렇게 바뀌지는 겁니다.

우리 인간만 그런 게 아니라 세계적으로

☞ A27면으로 계속

2026 병오년 뜨거운 열정! 꺾이지 않는 도전! 쉼없는 전진!

"평등하게 사시사철 푸르게살라"





대행선사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마음으로 한마음선원 진주지원

진주봉사단이 지역주민에게 점심을 제공하고 소통하는 휴게음식점 "푸르게살라"

진주봉사단 일동

후원계좌 : 농협 801098-51-008286(한마음선원)

※광고 홈페이지 QR. 수익 일부는 AI전법에 활용됩니다.